

## 위험 사회와 공동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문학 -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

이영호 (루터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며
- II. 위험사회와 사회적 트라우마
- III.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문학
  - 1. 언어회복을 위한 낭독의 발견 - 304 낭독회
  - 2. 증언으로서의 문학 - 기록의 투쟁
- IV. 치유와 회복의 글쓰기로서의 문학
  - 1. 치유로서의 글쓰기
  - 2.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학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8.08>

\* 이 논문은 2020년 『루터대학교 교내 학술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lutheran@ltu.ac.kr](mailto:lutheran@ltu.ac.kr)

---

• ABSTRACT •

---

Literature for Healing Risk Society and Community Trauma: Focusing  
on Korean literature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Prof., Lee, Young Ho(Luther University)

Ulrich Baek pointed out that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Korean society has led to a dangerous society that is living with complex risks. Furthermore, he argued that Korea should now abandon its growth-oriented rush model and change to a more sustainable and eco-friendly development model. Ulrich Beck argues that literature reproduces time and space through narrative, thus, the narrative reproduced the aims at healing community.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writers engaged in writing as testimony. It created a space for discourse and memory in the trauma situation caused by the Sewol ferry incident. This was a tradition of Korean literature. The way the novel's representation of the Sewol ferry incident was very similar to the symptoms and healing process of social trauma. Therefore,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Korean literature refused to commemorate the simple Sewol ferry incident, Korean literature has played a role in bringing memory to life and bringing each victim to life. For those of us who have not yet moved into the future after that incident, literature guides us on how to endure pain by building a community of loss. These efforts of Korean literature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the formation of a "compassionate community" that could restore broken social relationships.

**Key words:** Sewol-Ferry,, Risk Society, Literature, Healing, Empathy

---

## I. 들어가며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5주기가 지났다.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해상 재난 사고가 아니었다. 만약 세월호 사건이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벌어진 단순 사고였다면 전 국민적인 분노와 집단우울증세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세월호 사건은 애초에 단순한 해상 재난사고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은 선장과 선원들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 해경의 소극적 구조 활동으로 인한 구조 골든타임의 지연에다가 정치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겹쳐지면서 최악의 국가 재난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보여 준 소극적 구조와 재난 관리 부실의 태도는 엄청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은 위정자와 정치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 이른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무능력한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는 대한민국 전체의 트라우마가 되고 말았다.

이후에 우리사회의 노력으로 2017년 봄에는 탄핵 정국 덕분에 세월호가 인양되었고 겨울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하여 사태가 수습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의 집적이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었고 "위험사회"(Risk Society)로 진입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sup>1)</sup>

1)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자신의 저서인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에서 인류사회는 산업화가 진행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험(risk)”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험군들에 의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위험사회는 생태위기와 사건과 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 그리고 세계화 등이 서로 연계되어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 이러한 거대 위험과 재난의 국제화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별히 울리히 벡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한국사회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복잡한 위험들을 안고 사는 위험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제 성장 위주의 정책들을 버리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발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이 ‘초기와 후기 근대’라는 비동시적인 상황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위험과 불신이라는 측면에서 복합위험사회의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한국은 농경사회의 전근대적 위험과 산업사회의 근대적 위험 그리고 정보사회의 후근대적 위험과 재난이 현재라는 시간대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sup> 한상진은 벡이 이런 이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많은 환경 위험을 양산하고 생태학적인 배려에 취약한 기존 모델은 명백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3)</sup> 장경섭은 벡의 “위험사회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성적으로 사고와 재난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를 “복합위

---

될수록 ‘위험’과 ‘불안’이 증대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를 ‘위험사회론’이라 부른다. 그는 ‘위험(risk)’을 현대사회에 대한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노진철,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 (서울: 한울, 2005), 21.

2) Anthony Giddens, Ulrich Beck, Scott Lash, *Reflexive Modernization*, 임현진 정일준 역. 『성찰적 근대화』 (서울:한울, 1998), 7~8.

3) 한상진, “위험사회 분석과 비판이론 - 울리히 벡의 서울 강의와 한국사회”, 『사회와 이론』 12(2008), 47.

기사회”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소설가 박민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세월호는 선박이 침몰한 사건이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했다.<sup>4)</sup> 대한민국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국가와 개인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공동체적 환상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지배는 이런 환상 대신 적자생존의 윤리를 자리하게 하였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상 재난 사고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공동체의 판타지가 붕괴되는 상징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김종건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붕괴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이다”라고 말한다.<sup>5)</sup> 이렇게 국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후 한국사회는 재난의 트라우마에 빠져야 했다. 결국 세월호 참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트라우마란 극심한 공포나 슬픔, 감동, 놀람 등으로 인해 마음 속 깊이 난상처를 말한다. 주디스 허먼은 트라우마의 증상을 “과각성(hyperarousal), ‘침투(intrusion)’, ‘억제(constriction)’”로 구분하며, “과각성은 위협이 닥칠 것이라는 지속적인 예상을 반영하고, 침투는 외상 순간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반영하며, 억제는 굴복되었던 둔감화 반응을 반영”한다고 기술했다.<sup>6)</sup> 그 중 침투는 그날의 기억으로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처럼 “사건을 반복적으로 체험”하여 “삶의 건강한 경로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하는 증상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배, 바다, 수학여행, 안산, 고2와 같이 세월호 사건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에 많은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4) 박민규, “눈먼 자들의 국가,” 『눈먼 자들의 국가』 (서울: 문학동네, 2014), 56.

5) 김종건, “세월호 트라우마와 죽은자와의 연대,” 『진보평론』 61(2014), 76.

6) Judith Herman,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최현정 역.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서울: 열린 책들, 2012), 70-71.

반응도 트라우마의 한 증상이다. 무엇보다 트라우마로 인한 언어적 침해 현상인 것이다. 트라우마와 언어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이 언어에서부터 시작하고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도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에 대한 내러티브는 아이러니에 대한 내러티브와도 같다”고 말했다.<sup>7)</sup> 그는 과학기술 발전이 동반한 산업화가 우리 사회에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성공적인 근대화가 야기하는 역설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위험은 사회통합의 위험을 의미하며, 미시적 차원의 개인과 거시적 차원의 사회구조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족, 공동체, 계층 등)가 점차 해체됨에 따라 사회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양산된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과 신뢰의 붕괴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겼다. 울리히 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구조의 연결 매개가 붕괴됨으로 인하여 생긴 이 트라우마는 사회불안정성의 증가를 가져올 터였다. 우리 사회가 갖게 된 세월호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후에 발생할 다른 고통에 공감할 능력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트라우마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숨기고 사는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말기 때문이다. 트라우마 유전을 연구하는 마크 윌린이 말했듯 트라우마는 언어화할 때에야 비로소 치유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만약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트라우마의 그림자를 대물림하게 될 것이다.<sup>8)</sup> 트라우마의 ‘언어화’란, 말을 하고 글을 쓰면서 무의식을 수면에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문학의 작업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고통스러운 상실을 의식화

7) “The narrative of risk is a narrative of irony.” Ulrich Beck, *Weltrisikogesellschaft : Auf der Suche nach der verlorenen Sicherheit*. 박미애·이진우 역, 『글로벌 위험사회』 (서울: 길, 2010), 20.

8) Mark Wolynn, *It Didn't Start with You*, 정지연 역.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서울: 푸른숲, 2016), 28-29.

하는 과정이다. 이는 치유로 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며, 그 과정에 문학의 자리가 있다 하겠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위험사회에 대한 자각은 우리 사회가 갖게 된 트라우마 극복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였다. 결국 문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하였다. 그동안 문학계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목소리를 잃었다는 작가들도 있었다. 그들은 글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발 빠르게 사건의 기록과 증언으로서의 문학 작업들을 진행한 작가들도 있었다. 사건 발생 후 약 4개월 만에 추모 시집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가 발간되었고, 이어 산문집 『눈먼 자들의 국가』, 세월호 유가족 육성 기록인 『금요일엔 돌아오렴』, 추모 소설집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세월호 이후 인문학의 기록’이라는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등의 책들이 사고 발생 1년 이내에 발간되었다. 이 외에도 각종 잡지에서는 세월호 관련 특집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후 수많은 작품들이 그 뒤를 이었다.<sup>9)</sup>

이러한 작업들은 한국 사회의 공동체 치유를 위한 문학의 노력들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은 내러티브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생산된 내러티브는 공동체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필자는 문학의 내러티브를 통해 위험이 생산되는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문학은 어떻게 답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9) 고은 외 68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서울: 실천문학사, 2014), 박민규 외 11인, 『눈먼 자들의 국가』, 416 세월호 참사 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서울: 창작과비평사, 2015), 심상대 외 14인,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서울: 예옥, 2015), 김종엽 외 3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서울: 그린비, 2015), 노명우 외 3인,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서울: 현실문화연구, 2015). 그리고 이 후의 작품으로 여러 문학잡지에 발표된 단편들과 방현석의 『세월』(서울: 아시아, 2017), 이생진의 『맹골도』(서울: 우리글, 2017),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서울: 창비, 2019)과 같은 시집, 창작집들을 들 수 있다.

한다.

## II. 위험사회와 사회적 트라우마

2014년 4월 16일, 제주를 향해 인천에서 출발한 세월호 여객선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 내지 실종된 대형 참사였다. 물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3년 창경호 사고 때는 300여명이, 1970년 남영호 침몰사고 때는 326명,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로는 292명이 사망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6명이라는 인명 피해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들에 비해 세월호 사건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충격을 주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위험 인지학’에서는 인간이 갑작스럽고 불가항력적인 사건에서 느끼는 위험도가 통상적인 사건의 1000배 크기라고 설명한다. 메르스 사태 때 한국 사회가 느꼈던 공포는 3만 6000명의 사망자, 18만 6000명의 환자, 1700만 명의 격리자가 발생한 사건처럼 인식되었기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안과 혼란<sup>10)</sup>이 야기된 것이다. 메르스라는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에게 무차별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이기에 그 공포가 더 커지는 것이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다.

올리히 벡은 고도의 산업근대화로 인해 ‘위험사회’가 탄생하고 이런 위험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술적·사회적 혁명은 생활양식의 개인주의화를 빠르고 깊게 진척시키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위험과 위험지각은 갈등의 새로운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 위기는 개인의 위기, 다시 말해서 개인의 부적응,

10) ‘불평등한 불안과 공포’, 『경향신문』 2015년 8월 17일자, 제5면.

죄책감, 불안, 갈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sup>11)</sup> 그 중에서도 “탈근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 가장 많이 흔들리는가?”라는 질문에 백은 ‘위험-불안’이라고 답한다.<sup>12)</sup> 위험사회의 도래로 인해 생존의 두려움이 존재의 불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백은 위험사회의 존재론적 불안을 ‘성찰적 근대화’ 담론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 ‘성찰적 근대화’ 담론은 현대사회가 위험을 생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판적 공론의 장을 형성한다는 거대담론이다. 그는 ‘성찰적 근대화’ 시대에는 권력 질서가 다양한 ‘하위정치’로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하위정치’ 영역을 성찰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하위정치’는 위험사회를 도래케 한 과학의 정당성을 전문가에만 맡기지 말고 이제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반인들이 의심해보기도 하고 비판적인 공론의 장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나아가서 정치 역시 의회에만 맡겨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한다.

이와 같이 올리히 백은 ‘위험사회’를 성찰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위정치’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과학기술이나 기존정치가 배제된 형식인 ‘문학적 함의’ 또한 위험사회를 성찰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올리히 백이 “소설의 역사는 모두 나란히 리스크의 역사적 형태변화로 서술될 수 있다”<sup>13)</sup>고 지적한 것처럼 성찰적 근대화가 “자기 대면과 자기비판을 의미한다”<sup>14)</sup>고 한다면 문학이야말로 위험사회의 자기비판에 적합한 하위정치의 한 형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 Ulrich Beck, *Risikogesellschaft*,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1997), 170-171.

12) 임미원, “백의 위험사회론에 대한 기초적 고찰,” 『법학논총』 31(2014), 202.

13) Ulrich Beck, 『글로벌 위험사회』 24.

14) 박미애, “위험사회의 성찰적 책임윤리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와 올리히 백의 성찰적 근대화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96(2005), 277.

서사문학은 서사의 형식을 통해서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하는 다른 서사들에 맞서야 하는 것이다. 김요섭은 다른 서사의 창출은 한차례 고향의 외침으로 끝내지 않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형식, 삶의 형식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세월호를 ‘사고’의 프레임이 아니라 ‘사건’의 프레임으로 보려 한 것 역시 사건의 ‘서사로 구성된 다른 시선’이라고 말한다.<sup>15)</sup>

트라우마는 어떤 강렬한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현재의 삶을 방해하는 원인이며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전쟁 같은 치명적인 사건, 외부의 압력으로 잘 생기는데, 정신적 외상은 외상을 일으킨 사고의 순간에 대한 고착으로 성격 발전의 저해나 왜곡을 초래한다. 특히 인간 존재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sup>16)</sup> 트라우마는 인간 개인의 내적 불안정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충격에 의한 충격의 여파로 생긴 마음의 상처이다. 따라서 ‘세월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정서적 심리 치료와 회적·구조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문학의 움직임은 ‘아직 끝나지 않는 참사’의 고통 안에서 살고 있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중심을 두고 있다.

주디스 허먼은 사람들이 잔학 행위를 당했을 때 그 행위를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대응 방식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무시무시한 사건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것을 큰소리로 외치고자 하는 의지의 충돌은 심리적 외상에서 중심적인 변증법을 구성”<sup>17)</sup>하며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정서적이며 모순적”임을 강조했다. 사건에 대한 진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심리적 외상 사건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15) 김요섭, “다시, 웅성거림의 문학,” 『창작과 비평』 173(2016), 376.

16) Michel Arrivé, *Linguistique et psychanalyse : Freud, Saussure, Hjelmslev, Lacan et le.*, 최용호 역, 『언어학과 정신분석학』 (서울: 인간사랑, 1992), 69-70.

17)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16-17.

세월호 사건 이후 발생한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수많은 연구는 제프리 알렉산더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는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집단의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서 그들의 기억에 영원히 자국을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자신들 미래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끔찍한 사건을 당했다고 여겨질 때, 문화적 외상은 발생<sup>18)</sup>”한다고 했다. 알렉산더의 이론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 또한 우리 사회에 문화적으로 외상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월호 침몰은 국가가 국민의 구조를 포기한 ‘사건’이었고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발전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전면적으로 되돌아보게 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한국 문학은 묵묵히 이야기를 생산하고 슬픔의 정동을 재생산하면서 세월호 사건을 기록해 왔다. 그리고 이런 위험사회의 진보가 자칫 비인간화와 절멸의 과정으로 들어설 수 있음을 먼저 깨닫고 개인의 정서 그리고 공동체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새김으로써 인류가 비인간화로 나아갈 위험의 통로를 막아주고 나선 것이다. 문학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갖게 된 사회적 트라우마를 언어의 힘을 통해 치유하고자 한 것이다.

### III.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문학

‘세월호 사건’ 이후 작가들이 느끼는 허무와 공허 그리고 침묵을 송영현은 문학의 존재론적 반응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삶과 문학 사이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뿐 아니라 문학장에도 참사인 것은, 개인의 몫으

18) Jeffrey Charles Alexander, *Meanings of social life : a cultural sociology*, 박선웅 역. 『사회적 삶의 의미 : 문화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197.

로 다 둘러지지 않는 사회의 위기가 개인의 바깥 즉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를 위협하는 위협으로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가까스로 유지되던 삶과 문학 사이의 시차 혹은 장막이 찢어졌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시인과 작가들이 말의 허무와 공허에 시달리고 말이 흩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에 직면해야 했다. 삶에 시민-증인으로서 개입/연루된 상황에 대한 시인과 작가들의 존재론적 반응이 아닐 수 없다.<sup>19)</sup>

소영현의 이런 견해는 작가들이 견딘 침묵의 시간과 그 시간 동안 부서진 말들을 통해 문학이 세월호 사건의 목격자이자 증인의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작가 김영하는 “세월호 이후의 한국 사회는 무간지옥 같았다. 소설가는 어떤 격변이 좀 지나간 이후에 돌아보는 사람들이지 현장에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끔찍한 사고 이후 한동안 소설을 쓸 수 없었고, 그 절망감이 녹아들 수밖에 없었다”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충격적 감정을 표현한 바 있다.<sup>20)</sup> 작가 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출간 할 무렵 광화문을 지날 때마다 만났던 ‘영영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천막과 폭력과 고통의 잔상 때문에 무언가에 자주 몸을 부딪치곤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시 작가적 숙명에 빠져들었지만 쓰지는 못했던 침묵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무엇인가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문장들을 지우고, 다시 시작한 문장들을 또 지우다가 여름이 왔습니다.”<sup>21)</sup> 그녀도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과 다르게 쓰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9) 소영현, “목격하는 증인, 기록하는 증언 : 이후의 삶 혹은 문학,” 『문예중앙』 149(2017), 26.

20) ‘세월호 이후 한국은 무간지옥 같았다. 『매일경제 MBN』 2017년 5월 25일자, 제5면.

21) 한강,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제15회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품집』 (서울: 중앙북스, 2017), 56-57.

세월호 사건 이후 ‘간헐적 실어증’을 호소하던 작가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보수담론과 국가의 압력이 강해지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 말도 건넬 수 없는 슬픔으로 희생자들에게 예의를 다하던 작가들은 죄책감과 망연함을 떨쳐내고 자신이 가진 언어로 ‘활발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문학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앞서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침묵의 시간’을 견뎌기 때문이다. 이광호는 ‘남은 자의 침묵’을 말하며 문학은 말로 표현되지 않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다는 것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듣는 일이라고 말한다.<sup>22)</sup> 문학평론가 강유정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도덕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를 비난할 자격과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 어떤 것을 쓰고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를 오랫동안 고민하였다고 한다.<sup>23)</sup> 작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의 요구이며 발명된 언어인 침묵의 언어에 낯설어하고 남겨진 자들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 1. 언어회복을 위한 낭독의 발견 - 304 낭독회

한국 문학이 선택한 첫 번째 활동은 낭독회였다. 『304 낭독회』라 이름지어진 이 낭독회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시대의 아픔을 증언하는 작가와 시민들의 행동이었다. ‘참사’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던 작가들이 2014년 8월 27일 한자리에 모여 이제는 ‘할 말’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시작됐다. 문학평론가 양경언은 ‘304 낭독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22) 이광호, “남은 자의 침묵 -세월호 이후에도 문학은 가능한가,” 『문학과 사회』 108 (2017), 319.

23) 강유정, “가까스로, 필연적으로-2014년 4월 16일 이후 문학과 영화의 자리,” 『릿터』 5(2017), 43.

‘진상 규명이 된다고 해도 사건에 대한 기억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모았다. 이미 땅가진 말을 부여잡고 각자의 책상에서 골몰해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야기를 읊기고, 전승하며, 기억을 이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을 기리며 304회를 채울 때까지 계속될 ‘304낭독회’였다.<sup>24)</sup>

2014년 9월 20일에 열린 첫 낭독회는 작가들과 작가의 친구들이 세월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한 줄로 표현한 문장 306개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두 번째부터는 약 열 명 내외의 낭독자가 차례대로 준비한 글을 읽는 방식에다 세월호 관련 책을 낭독하는 순서가 더해졌다. 낭독회 마지막 순서에는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를 참여자들 모두가 소리를 내어 읽었다. 304 낭독회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에 모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304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려면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낭독회의 진정성을 확보해준다. 진실은 유예되었으므로 오랫동안 기억하고 싸워나가는 동력이 필요하다. 304 낭독회는 “살아 있는 자들이 오롯이 짊어질 몫”이자 지금 쓰이고 있는 기억의 형태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지는지에 충실하기 위해 계속되는 질문과 같다. 낭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SNS에 공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한 글을 낭독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시민과 작가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구분을 없앤다.

‘여기에 있는’ 참여자들의 말이 역으로 ‘여기에 없는’사람을 드러내는 단서가 된다는 텔레마적 상황은, 세월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안고 있는 책무에

24) 양경연,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304 낭독회에 대한 기록, 『릿터』 5(2017), 49-50.

해당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왜 없는지 그 경위에 대해 생각하며 질문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을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sup>25)</sup>

304 낭독회는 세월호 문학을 광장으로 끌어내어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 사회의 여러 맥락과 어떻게 어우러지고 배치되는지 질문하게 하였다. 또 참여자가 매번 바뀌고 진행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사건 너머로’의 미래를 꿈꾸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잊지 않겠다는 작가들의 다짐은 세월호 문학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아 있는 자로서 생생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 2. 증언으로서의 문학 - 기록의 투쟁

다음으로 한국 문학이 시도한 것은 『증언으로서의 문학』이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정부의 조직적인 진실 은폐와 언론의 왜곡보도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고 그 안에 진실이 있음을 반증하였다. 작가들은 언론인들을 대신하여 진실을 밝히고, 유족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사건을 기록하는 책무를 받아 안았다. 세월호 이후 수많은 증언과 기록물이 쏟아졌다. 사건 초기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는 듯하던 기성 언론들은 ‘지겹다’,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며 더는 세월호에 대해 말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정부 주도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만 하면 됐다’는 ‘피로담론’은 사고 당시 세월호 안에서 반복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과 동일시되며 앞으로 영원히 기억하고 행동하겠다는 증언문학의 탄생을 촉발하였다.

주디스 허먼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

25) 위의 글, 51.

한다. 외상 생존자가 외상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세계가 의미 있다는 느낌을 회복할 수 있기에 필수적으로 공동체의 반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언어화되지 않고 정적인 기억을 전환시켜 삶의 이야기에 통합시키는 과정은 트라우마 치유에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 재구성하기’는 “하나의 증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재구성하도록 도와주는 소설은 사회적 트라우마 회복의 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외상 이야기를 되짚는 목적은 외상을 통합하는 데 있으며, 외상을 내쫓는 엑소시즘에 있지 않다. 재구성의 과정 속에서 외상 이야기는 전환을 거치지만, 이는 보다 현재적으로 현실적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심리 치료 근간에 놓인 기본 전제는 진실을 말할 때 회복의 힘이 생긴다는 믿음에 있는 것이다.<sup>26)</sup>

김탁환이 2016년 발표한 『거짓말이다』에서는 세월호 구조 현장에서 목숨을 건 활동을 벌였던 민간 잠수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월호 정국에서 쏟아진 수많은 말들이 인터뷰 형식으로 담겨있다. 작품에서는 ‘세월호’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독자들은 누구나 이 작품이 세월호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맹골수도라는 지명, 민간 잠수사들의 시신 인양 과정, 희생자 유족들의 증언 등은 세월호 사건의 기록물처럼 촘촘하게 쓰여 있다. 김탁환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의 한 방식으로 소설을 쓰고 있으며, 소설에 담긴 이야기는 ‘전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 상황이 지나치게 참혹해 그대로 담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잠수사들이 본 걸 있는 그대로 쓰면 공포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럼 소설의 목적에 어긋나니까 열배정도 희석해서 쓴 겁니다. 배 안에 온전한 시신만 있었겠습니까. 잠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죽은 아이가 나를 도와줘서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sup>27)</sup>

26)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301-302.

그렇다면, 인터뷰집과 소설은 어떻게 다른가? 그의 작품은 ‘르포 형식의 소설’이라는 작가의 답을 들을 수 있다. 김탁환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월호 피해자들 전부와 유가족들, 잠수사들이 함께 썼다. 나는 듣고 상상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 기록을 맡았을 뿐”이라면서도 ‘거리두기를 하며 픽션을 만들어갔다고 밝힌다.<sup>27)</sup> 소설 안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시점으로 한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룬다. 언론에 호도된 대리운전 기사, 담당부서 공무원, 잠수사의 가족, 유족, 기자, 희생 학생, 생존 학생, 변호사 등 그 인물들의 말은 언론과 기록물에서 만나본 말들과 다르지 않다. 소설 속 이야기는 사건을 재현하는 데 집중한다.

줄거리를 살펴보자. 6천 톤급 거대 여객선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한다. 민간 잠수사 나경수는 사고 당일 수백 명의 잠수사가 투입됐다는 보도에 안심했다가 사고 발생 5일이 지나서야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다. 소설은 사고 관련자들의 인터뷰와 동료 잠수사의 죽음의 책임을 지고 법정에선 류창대의 탄원서를 쓰기 위한 나경수의 기록이 교차하면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 서사를 다룬다.

선내에서 발견한 실종자를 모시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채 모시고 나온다! 맹골수도가 아니라면 평생 하지 않아도 될 포옹이지. 이승을 떠난 실종자가 잠수사를 붙잡거나 안을 순 없으니, 이 포옹을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이요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이며, 무사히 마치는 것도 여러분이

27) ‘아이들 안고 나온 잠수사들 이야기... 전부 사실입니다 : 김탁환 장편 ‘거짓말이다’ 세월호 참사 다뤄’, 『한국일보』 2016년 7월 28일자, 제7면.

28) “증언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 증언만 받아쓰면 인터뷰집이다. 소설은 인터뷰집과 다르다. 작가 머릿속에 ‘세계’가 구축돼야 한다. (...) 말하자면 ‘중아웃’이 필요한데, 현장 민간 잠수사들의 말을 크로스체크(교차 점검)해봐도 이걸 다 알 수는 없다. 세월호 도면을 비롯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수습 과정을 상상했다. 인터뷰한 만큼, 어쩌면 그 이상을 따로 공부했다.” ‘소설로 부활한 세월호 잠수사’, 『시사HN』 2016.8.30.(제 467호), 23.

다. 산 사람끼리 껴안을 때보다 다섯 배 이상 힘을 줘야 해. 게다가 멈춰 서서 편히 안는 게 아니라, 안은 채 헤엄쳐 좁은 선내를 빠져나와야 한다. 끝까지 포용을 풀어선 안 되는 건 기본이고, 이동중에 실종자의 몸이 장애물에 부딪쳐 굼허거나 찢긴다면 여러분은 평생 그 순간을 후회할 거다.<sup>29)</sup>

수색 당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비공식적으로 (세월호 수색·구조 활동 중인) 민간잠수사가 일당 100만 원, 시신 1구 수습 시 500만 원을 받는다.”<sup>30)</sup>는 말을 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퍼진 잠수사에 대한 냉소는 대리운전 기사의 입을 통해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준다.

나한테 이익이면 하고 손해면 안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살입니다. 나도 민간 잠수사들 인터뷰하는 거. 오며가며 라디오로 들긴 했는데, 그들은 철저히 돈 문제는 언급을 피하더군요. 잠수사들 말대로 몸도 마음도 손해만 봤다면 그 바다로 왜 뛰어듭니까? 돈 말고, 민간 잠수사들이 맹골수도로 내려간 까닭이 따로 있더라도 합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애국심이라든가 실종된 학생들이 눈에 밝혀서라든가,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 빼고 말입니다. (...) 결국 다 돈 때문입니다.<sup>31)</sup>

오랜 시간 감압 치료를 받아도 회복하기 어렵고 앞으로 잠수를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망가진 잠수사들의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의 내면에 있던 ‘타인을 위해 인간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마주선다. 많은 이들이 민간 잠수사들의 ‘이타성’을 믿지 않았다. 돈을 많이 주니까 대목을 잡으려고 일했다고 여긴다. 수색이 한창이던 5월까지 잠수사들의 인건

29) 김탁환, 『거짓말이다』, (서울: 북스피어, 2016), 33.

30) ‘청와대 대변인 “민간 잠수사 시신 1구에 500만원” 발언 논란’, 『국제신문』 2014년 5월 25일자, 제2면.

31) 김탁환, 『거짓말이다』 25.

비는 8시간 기준 9만 7000원 수준으로 잡혀 있었고, 그마저도 해경과 언딘 쪽에서 어느 쪽에서 지급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sup>32)</sup> 작가는 자기 몸은 돌보지 않는 ‘저 사람들의 이타성은 어디서 비롯’됐는지, ‘고통은 어떻게 인간을 바꾸나’하는 질문에 대해 탐색한다.

헤드랜턴을 가까이 대니, 희미하게 이름이 보였습니다.

종후, 윤종후였습니다.

그 배에서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나온 남학생은 윤종후뿐이었습니다. 평상복으로 자유롭게 다녀도 되는데, 가슴에 이름표를 단건 분명 이상한 일입니다. 나중에 종후 부모님께 들으니, 종후가 어느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윤종후란 걸 알리기 위해, 가방에 있던 이름표를 꺼내 가슴에 달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종후의 뺨에 제 오른손을 가만히 댄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종후야! 올라가자. 나랑 같이 가자.”

선내로 진입한 잠수사들이 실종자를 찾으려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머물든 입술을 통해 나오든, 실종자를 찾은 후엔 그 실종자와 함께 어둠을 뚫고 좁은 배 안을 빠져나와야 하니깐요. 잠수사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실종자가 돕지 않는다면, 결코 그곳에서 모시고 나올 수 없다고.<sup>33)</sup>

바닷 속에 가라앉아 이미 생명은 끊어졌지만 그를 이끄는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잠수사들이 외롭고 고된 작업 환경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라는 장면이다. 그러나 잠수사들은 인양 작업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뼈가 썩어가는 잠수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

32) '민간잠수사 수당 지급된 적 없어', 『아시아경제』 2014년 5월 8일자, 제3면.

33) 김탁환, 『거짓말이다』 80-81.

맹골수도에 침몰된 선내를, 끼니를 잇듯 오간 잠수사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잠수병에 걸렸으니까요. (...) 잠수중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질소가 기포를 형성하여 피의 흐름을 방해한 겁니다. 이압성 골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근육이 찢기거나 인대가 늘어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 민간 잠수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치료였습니다. 잠수병 치료 장비와 잠수의학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한 경우 전신이 마비되거나 혈관이 막혀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 바지선에선 잠수병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실종자를 모두 찾자고 결의했지만, 막상 병원에 도착하고 나니 두려웠습니다.<sup>34)</sup>

정신과 의사 정혜신은 죽은 이들을 끌어안고 올라온 민간 잠수사의 무너진 일상에 이 책 『거짓말이다』는 치유적 존재라고 말한다.

“읽는 동안 민간 잠수사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내려가 세월호 선체 안을 함께 헤매고 다닌다는 실감에 식은땀이 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경험은 읽는 이에게 뜻밖의 위로가 된다. 그 고통에 나도 함께했다는 느낌 때문이다. 깊은 공감을 느끼며 같은 주파수를 공유한 사람들은 의도치 않아도 종내 서로에게 치유적 존재가 된다.”<sup>35)</sup>

김탁환의 『거짓말이다』는 한 사람의 ‘목격자’가 사고를 목격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종내는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진 하나의 재현 소설이다. 작가는 분노하되 냉정을 유지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서 “태도는 실천이 아니다. ‘나는 이만큼 도덕적 인간이야’에서 멈춰선 안 된다.”고 말한다.<sup>36)</sup>

34) 위의 책, 195-196.

35) 정혜신, “추천사,” 『거짓말이다』 10.

36) ‘소설로 부활한 세월호 잠수사,’ 『시사HN』, 467, 2016년 8월 30일자, 23.

작품 뒤에 붙은 25페이지에 달하는 길고 긴 ‘작가의 말’을 통해 김탁환은 이 소설을 써내려간 여정과 세월호 인양 작업에 참여했던 고(故)김관홍 잠수사와의 일화를 밝혔다. 이 소설에 담긴 수많은 ‘목소리’들만 보아도 작가가 굳이 작품 외에서 밝히지 않더라도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절한 안내서와 같은 작가의 ‘노력’ 덕분에 독자들은 ‘세월호’라는 말이 쓰여 있지 않은 『거짓말이다』의 여러 서사를 정밀한 기억과 기록의 한 장면으로 느낄 수 있다.

실제 표현하려는 대상과 거리를 두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승화’와 같은 문학적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건 진짜 해결이 아니다. 문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보탬이 되려면 현실을 정확하게 써내야 한다. 고통, 슬픔, 자부심 따위를 그대로 써내는 탐문 정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거짓말이다』에서는 은유와 상징을 덜어냈다.<sup>37)</sup>

또 다른 방식의 “증언”으로서의 문학으로 김연수의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도 있다.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는 한때 연인이었던 나와 희진의 기억과 시간에 관한 소설이다. 작품 속에서 세월호는 2014년의 그 사건이라는 배경으로 등장한다. 화자인 ‘나’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 2008년 이후 소식이 끊어진 옛 연인 희진에게 메일을 받는다. ‘나’의 옛 연인이자 가수인 희진은 공연을 위해 간 일본 요쓰야에서 메일을 보냈다. 비슷한 시간에 일본과 한국에서 옛 연인은 배가 가라앉은 장면을 보며 10년 전 기억<sup>38)</sup>을

37) 위의 글, 25.

38) “희진이 그 이메일을 쓴 건 배가 가라앉은 다음 날 밤이었다. 그녀는 아침에 호텔 뷔페를 먹고 올라와 무심코 TV를 켜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됐다고 썼다. 거의 비슷한 시각에 나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김연수,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 『2016 올해의 문제소설』 (서울:푸른사상, 2016), 42.

소환한다.

희진은 공연장에서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를 부르던 중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노래를 멈춘다. 그리고 공연을 주관한 후쿠다 준 참의원을 만난다. 후쿠다는 2004년 희진이 일본에 다녀왔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희진과 ‘나’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엄청난 감정적 동요를 일으킨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바로 그 사건이다. 희진은 메일을 통해 10년 전 2004년 4월 16일의 일을 묻는다. 10년 전 그날은 나와 희진, 후쿠다. 이 세 사람이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의미가 부여된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지만 왜 요쓰야에 갔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희진,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잊었지만 그 카페에 두 사람이 있었던 사실은 기억하는 후쿠다, 카페에서의 기억은 잊었지만 그날을 객관적으로 되살리고자하는 ‘나’, 이 셋은 2004년 4월 16일을 기억하는 방식이 모두 달랐다. ‘요쓰야의 카페’, 아카이 토리의 〈하얀 무덤〉, 마크로스코의 그림으로 각각 남아 있는 그날의 기억은 10년 후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연결점이 생긴다. 세 사람의 기억의 조각들이 연결되는 방식들은 2014년 4월16일을 우리 개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야 할지에 대한 작가의 응답이다.

이태숙은 이 작품에 대해 “세 사람의 조각난 기억이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집합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게”되어 기억이 구성되는 방식을 따라가게 된다<sup>39)</sup>고 해석했다. 시간과 시간을 기억하는 연인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세월호라는 시간은 과거의 일일 수 없음을 환기시킨다.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줄곧 나를, 한 번도 만

39) 이태숙, “기억의 공간, 4월 16일,” 『2016 올해의 문제소설』 64.

나쁜 일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나를 기억하게 된 일에 대해서 생각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동안에도 말이야. 그렇다면, 그 기억은 나에게, 내 인생에,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려고 애쓸 때, 이 우주는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까<sup>40)</sup>

세월호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일이 이 시대 문학의 과제임은 분명하다. 세월호를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그 기억은 온전히 같을 수는 없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기억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될 수도 있다. 이 소설은 두 남녀의 십 년 전 연애담을 떠올리며 기억과 인연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억이란 누군가의 인생과 “우주”에 작은 영향이라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함께한다.

신성환은 이 소설에서 시간적 배경으로 쓰이는 세월호가 결과적으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방식을 강력하게 일깨운다”라고 지적했다.<sup>41)</sup> 이 태숙은 베르그송을 인용하며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속성으로 치환된 시간, 즉 공간화된 시간”이며, 이 소설은 “4월 16일이라는 시간에 대한 소설이 아니라 ‘요쓰야의 카페’, 그리고 ‘제주 바다’라는 공간이 만들어낸 ‘시간의 기억’에 관한 소설<sup>179)</sup>”이라고 해석했다. 즉, 세 사람이 다르게 기억하는 시간과 공간은 세 사람이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태숙의 분석대로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를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기억하려고 애쓰는 행위야말로 나와 타인, 세상과 우주가 미약하지만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려고 애쓸 때, 이 우주는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까”라고 묻는 희진은

40) 김연수, 『2016 올해의 문제소설』 58.

41) 신성환, “한국 소설에 나타난 부재의 기억에 대한 상상력<sup>46</sup> 세월호 참사를 다룬 네 편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58(2015), 150.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작가는 희진의 물음을 통해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기억하는 일이 시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 IV. 치유와 회복의 글쓰기로서의 문학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은 참사의 충격으로 이 후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심리학자 베레나 카스트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그의 죽음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맛 볼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와 함께 죽는다”<sup>42)</sup>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충격도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사건 이후에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힘들게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게 만들었으나 진실을 감추려는 정권의 방해 속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은 묘연하기만 했다. 여론도 사건 초기와 달리 진영과 이념에 따라 양분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유족들은 재난으로 초래된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힘들었다.

##### 1. 치유로서의 글쓰기

유족들과 함께 사회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 작가들도 언어를 잃어버리는 경험에 빠지고 말았다. 윤대녕 작가가 5년 만에 발표했던 소설집 『누가 고양이를 죽였나』에는 지난 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소설집 속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죽음에로의 여행을 하고 있다. 실제로 윤 작가는 세월호 사건 이후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고 고백한다. 2016년에 쓰인 윤대녕의 장편 『피에로들의 집』 후기에서

42) Verena Kast, *Trauern*, 채기화 역, 『애도』 (서울: 궁리, 2007), 15.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계간지 연재가 시작될 즈음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후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며 쓰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작가임을 스스로 한탄하기도 했다. 결국 연재가 한 차례 중단된 뒤 나는 미완의 원고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sup>43)</sup>

말을 엮으로 삼은 작가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참담한 말은 ‘말문이 막혔다’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그의 말문이 막힌 다음에 쓰여진 것들이었다. 말문이 막혔던 작가는 어떻게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나? 작가에게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생명을 잃은 바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글을 쓸 수 없었던 윤대녕 작가는 결국 2015년 1월 쓰던 소설을 접고 캐나다로 떠났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나는 ‘작가인 나의 죽음’을 경험했고,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으리라는 예감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 중략 — 낯선 도시의 병원에서 누워 있는 동안, 나는 우선 단 한 편의 소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맨 앞에 수록된 단편 「서울-북미 간」이 그것이다.<sup>44)</sup>

떠나면 잊을 줄 알았던 그 기억들이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는 그는 5년 만에 이 소설집을 이 땅에 토해냈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스스로가 되살아남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sup>45)</sup>한다.

43) 윤대녕, ‘작가의 말,’ 『피에로들의 집』 (서울:문학과 지성사, 2016), 248.

44) 윤대녕, ‘작가의 말,’ 『누가 고양이를 죽였나』, (서울:문학과 지성사, 2019), 279-280.

45) “그동안 나는 많이 변했다. 눈빛도, 얼굴도, 마음도. 내가 원하지 않거나 짐작하지 못한 방향으로 쏠릴 듯 뭔가 조금씩 계속 비틀리며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을 자각하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변화를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삶의 처지가 그러하듯이, 하물며 내가 나를 다시 작가로 인정하기까지 많은 경과

「서울 - 북미 간」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정신과 의사 K는 4년 전 사고로 외동딸을 잃었다. 가지 말라고 딸을 말리던 아내를 설득해 보낸 래프팅에서 사고가 났고,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밤, K는 거울 앞에 서서 면도칼로 눈썹을 밀어버렸다. 이후로는 차갑고 낮은 세상에서 스스로 업을 짊어진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고 K는 생각했다. 아마도 정신적 외상 때문이었으리라, 딸이 죽고 나서 K에게는 심한 피부 발진이 생겼다.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니 알레르기는 대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성인 아토피의 일종일지도 모른다는 애매한 말도 덧붙였다.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서 그때마다 증상을 가라앉히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붉은 반점은 독버섯처럼 몸에 번졌고 이후 6개월 뒤에나 서서히 가라앉았다.

딸의 죽음에 따른 후유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아내와의 사이에 생긴 균열은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 아내는 모든 원인과 잘못이 K에게 있다며 한시도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K가 입고 다니는 옷을 가위로 조각내 놓기도 했다. 제출에 견디지 못한 아내는 결국 친정으로 옮겨갔다. 그리고는 몇 달 후 협의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 K는 묵묵히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냈다.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자 아내는 마흔여덟 살의 나이에 요리 공부를 하러 간다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프랑스로 떠났다. K는 일상적으로 술을 마셨다. 뼈에 찬바람이 승승드나드는 듯한 공허함과 모진 자책감이 아귀처럼 그를 다그쳤다.<sup>46)</sup>

이후 K는 자신을 몰아붙이던 아내와 헤어진 뒤 의욕을 상실한 채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아침이면 진료실에 들어와 문진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 필요했다. 당연한 예기겠으나, 밤마다 거미줄을 치듯 한 줄 한줄 글을 씌으로써 그것이 비로소 가능했다. 이제 겨우, 나는 되살아났다.” 위의 책, 280-281.

46) 윤대녕, 『누가 고양이를 죽였나』 18-19.

부부싸움을 해대는 환자들에게 환멸과 무기력을 느낀다. 그러던 중 세월호 침몰을 접한다. 아이들의 죽음은 아물 줄 모르던 그의 목은 상처를 헤집고 들쭉서 놓았다. 소설 속 K는 어느 날 조문객 행렬에 서서 허파가 뒤집히는 고통을 느낀다. 딸의 죽음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300여명이 침몰한 생명의 사라짐에도 깊이 연루돼 있음을 자각한다. 체념·방관·타협·무관심이 바로 누군가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침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체념·방관·타협·무관심의 장벽을 허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죽음의 언저리를 맴돌며 그것을 파먹고 사는 까마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안 그래?”<sup>47)</sup> K는 도망치듯 병원을 정리하고 북미대륙 캐나다로 떠난다. 그러나 타향에서도 그의 고통은 계속된다. 아니 더 커지는 듯하다. 작가는 「서울-북미 간」에서 세월호 참사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연결시킴으로써 한국 사회의 취약하고 부패한 근대성을 역사화하기도 한다.<sup>48)</sup>

그가 한국을 떠난 후 첫 도착지로 밴쿠버를 선택한 이유는 언젠가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음을 나눴던 한 여성 H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초기 소설과 달리 둘의 만남에는 어떤 떨림이나 에로틱한 분위기도 없다. H 역시 삼풍백화점 붕괴 때 남편을 잃고 평생을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온 인물임이 곧 드러나기 때문이다.<sup>49)</sup> K는 H와의 만남에서 힘겹게 살아온 그녀의 나날들을 발견한다. 임신의 단꿈에 빠져 있던 H는 시부모의 여행 준비를 위해 남편과 만나기로 한다. 남편은 강의가 일찍 끝나서 먼저 도착한다. 그런데 약속시간보다 5분 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H 앞에서 삼풍백화점은 남편을 품은 채 무너져 내리고 만다.

47) 위의 책, 158.

48) 김형중, “제비가 떠난 후,” 위의 책, 276.

49) 위의 책, 272.

결국 슬픔을 삼킨 채 캐나다로 건너와 유복자인 딸을 키우며 살아왔던 것이다.

K와 짧은 여행을 하면서 k에게서 불안감을 느낀 H는 그에게 캐나다에 온 이유를 묻는다. 혹 K가 삶을 파괴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K는 속마음을 들킨 것이 화가난 것처럼 격렬하게 부인한다. H는 K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는 계속 살아가야만 하니깐요. 제발 자신을 해치지 마세요. 그게 또 언젠가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K씨와 다시 만나고 싶거든요.”

윤대녕 작가는 도망치듯 떠난 북미대륙에서도 사나운 꿈에 쫓겼고 급기야 호흡곤란으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소설을 쓰면서 삶의 리듬을 찾아갔다고 고백한다. 누구에게는 쓰면서 위로가 되고, 또 누구에게는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작품이 우리에게서 필요하다. 온 국민이 4월이 되면 벚꽃과 함께 침몰의 열병에 시달려야 하니 말이다. 우리에게서 이제 4월마다 우리를 위로해줄, 또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갈 유족들을 기억해줄 무엇이 필요하다. 소설이든, 노래든, 영화든, 한 줄의 문장이든, 단순히 노란 리본이든 말이다.

2014년 누구보다 먼저 세월호의 기록을 글로 남겼던 동화작가들의 책인 한 뼉 그림책 『세월호 이야기』의 발간사에서 작가 임정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린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릇된 이 상황은 되풀이될 것이고, 착하고 예쁜 이 땅의 아이들은 언제라도 잘못된 사회 구조에 의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시인, 동화작가, 그림 작가 65명과 책 만드는 사람들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한 뼉 그림책 〈세월호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50)

50) 임정자, ‘책을 펴내며,’ 『세월호 이야기』 (서울: 별숲, 2014), 5.

상처의 흔적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다시 4월이 오면 우리는 아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소설 속 K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서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버둥거렸던 것처럼. 우리도 살기위한 안간힘을 써야 한다.

## 2.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학

사회심리학자 페니베이커는 “심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친구나 가족 성원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그 사건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높은 수준의 불안, 우울증, 불면증 등 다수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된다”고 하였다.<sup>51)</sup>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때문에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이나 문학가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구술 인터뷰나 생일시 작업을 통해 참사 피해자들의 개별적 사연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세월호 사건 유족들의 인터뷰와 생일시 창작의 활동들은 세월호 사건 유족들의 트라우마를 사회적 소통으로 극복하려는 치유적 말하기와 글쓰기인 것이다. 나아가서 인터뷰는 녹음의 형태로 끝나지 않고 후에 책으로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치유 글쓰기였다고 할 수 있다.

죽음의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던 사건에서 작가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쓸 수 없는 ‘재현 불가능’의 상태에 빠졌다. 세월호 사건 직후 팽목항으로 내려가 유족들과 직접 만나거나 안산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분노하는 산문 『눈먼자들의 국가』와 세월호 유가족의 육성기록 『금요일엔 돌아오렴』, ‘304 낭독회’라는 기록과 기억의 노력을 살펴보면 그저 그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잊지 않으려는 노

51) James W. Pennebake, Opening up : the healing power of expressing emotions, 김중환·박광배 역. 『털어놓기와 건강』 (서울: 학지사, 1999), 41.

력이 문학 작품이 아닌 기록물의 형태로 탄생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불가해성은 그 사건 자체를 묘사하지 않는다는 재현 불가능성에 도달한다.

세월호를 직·간접으로 다룬 소설에서도 ‘재현’ 혹은 ‘재현 불가능성’의 서사가 나타나는데, 이는 세월호가 인양된 이 시점에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상대, 전성태 등 15명의 작가들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예옥, 2015)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며 쓴 단편 소설을 담았다. 작가들은 창작 메모에서 이 작품을 ‘기록을 위해서 썼음을 밝히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재현하기 위한 작업으로 소설을 쓴 것이다.

작가 한 강은 이런 상황을 자신의 작품인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에서 표현하고 있다. 한강의 단편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에는 삼국유사에서 모티브를 얻어 희곡을 쓰고 있는 ‘나(k)’에게 암으로 죽은 지 3년이나 지난 임 선배의 영혼이 찾아온다. ‘나’는 이상하게 느끼긴 하지만 크게 놀라지 않고 그를 맞이한다. ‘나’는 동료일 뿐 속내를 나누지는 않았던, 가족도 연인도 아닌 ‘나’를 임 선배가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다. 임 선배는 출판사를 그만두고 시사 잡지편집부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비판 기사가 데스크에 의해 삭제된 일로 파업 투쟁을 벌이다 퇴사했다. 소설은 유명인 임 선배와 ‘나’의 대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현실의 틈새에서 말을 거는 타자에게 몸을 기울여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기를 그 불가능한 대화의 공간으로 밀어 넣는 시도”를 한다.<sup>52)</sup> 소설의 제목인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은 나와 임 선배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그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미혼 여성이 결혼을 하면 퇴사해야 하는 회사를 함께 다녔고,

52) 김영찬, “고통과 문학, 고통의 문학,” 『우리말글』 72(2017), 300.

그런 사규에 반발했던 노조 투쟁을 겪은 적이 있다. 임 선배의 동료가 퇴사한 자리에 채용된 ‘나’는 출근 투쟁으로 회사의 승복은 얻어냈으나 따돌림으로 인해 결국 회사를 그만둔 선배 경주 언니를 지켜봤다. 동료들의 외면이 회사의 명령보다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타자에 대한 공감을 포기하는 것이 곧 공동체 안에서는 폭력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경주 언니도 교통사고로 이미 목숨을 잃은 터다. ‘나’는 방관자이자 목격자이지만 “매일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들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 ‘나의 첫 직장의 동료였던 그들은 모두 죽고 “나만 살았다. 내가 쓰고 있는 희곡 속에서 소녀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나는 “상상 속 그녀의 고통만이” 뚜렷하게 느껴질 뿐, 그것을 쓸 수는 없다.’<sup>53)</sup>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은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세 인물을 통해 보여준다. ‘나’와 유령과의 만남은 급기야 “내가 입을 다물었는데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데 이른다. 나를 비우고 내가 타자의 목소리가 되는 순간이다. 김영찬은 이 장면에서 “타자의 고통에 전이되고 그 들리지 않는 고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타자의 목소리는 ‘나’에게 스며들어 ‘나’를 꿰뚫고 ‘나’ 안에서 울린다<sup>54)</sup>”며 고통에 다가가는 문학의 가능성을 읽었다.

이제 손을 꺼내 눈을 향해 내밀려는가, 나는 생각했다. 죽은 사람의 손은 얼마나 차가울까. 거기 닿은 눈은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까. 눈 한 송이가 녹지 않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sup>55)</sup>

53) “거기서 멈췄다. 더 쓸 수 없었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그 고통의 바깥에 있다는 사실이 무섭도록 생생했기 때문이다.” 한강,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제15회 황순원 문학상 수상 작품집』 (서울: 중앙북스, 2015), 45.

54) 김영찬, “고통과 문학, 고통의 문학,” 302.

55) 한강, 『제15회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품집』, 52.

고통의 바깥에 있다는 자각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참혹한 고통을 마주한 문학의 현실에 “무력함이 불가능한 재현에 그럼에도 한 걸음 다가가게 해주는 윤리적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56)</sup>

사회적 트라우마는 생존자와 유가족을 ‘고립’시키지만 “자신이 혼자 아픔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적인 끈을 회복<sup>57)</sup>”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너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보편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트라우마 회복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이기호의 소설에서는 생존자에 대한 타자의 반응을 그저 ‘바라만 본’ 목격자가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목격자의 성찰과 생존자와의 느슨한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강은 한 때 같은 직장을 다녔던 선배의 유령과 마주서는 과정에서 ‘연결의 복구’를 시도한다.

연결의 복구란, “자신이 혼자 아픔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한강 소설의 주인공 ‘나’가 유령 임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현재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해 나가는 ‘연결’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은 유가족과 생존자를 대하는 목격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윤리성이자 소설이 만들어주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 V. 나가는 말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세월호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후에 발생할 다른 고통에 공감할 능력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트라우마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숨기고 살아가려는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56) 김영찬, “고통과 문학, 고통의 문학,” 298.

57)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355.

만다. 트라우마 유전을 연구하는 마크 윌린은 트라우마는 언어화할 때 비로소 치유가능성이 열린다고 했다. 또 만약 치유되지 않으면 트라우마의 그림자를 대물림하게 될 것<sup>58)</sup>이라고 하였다. 윌린이 말한 ‘언어화’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글을 통해 무의식을 수면 위에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한국 문학의 작가들이 유족들과 함께 벌인 여러 작업들, 편지 작업, 시 작업, 수기 작업 등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고통스러운 상실을 의식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세월호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위험 사회 속에서 문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이 있었다.

특별히, 주디스 허먼이 제시한 트라우마 극복 단계 중 ‘기억과 애도’는 문학을 통한 치유의 가능성을 말해준다. 세월호 사건을 문학적으로 되새기며 충분한 애도를 표하는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주는 행위였다. 허먼은 “생존자가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를 나누면, 집단은 보편성이라는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집단은 생존자의 증인이 되며, 따라서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의미를 공유한다<sup>59)</sup>”고 말했다. 그는 기억과 애도를 위한 집단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억과 애도를 위한 ‘공감 공동체’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작업은 글로 세계를 구축하는 문학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문학은 세월호 사건을 사회적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무의식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작업의 결정체이다.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들도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유족들과 생존자들에게 ‘상실의 공동체’를 구성해주면

58) Mark Wolynn,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28-29.

59)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366.

서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도 어루만질 수 있게 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작가들은 작품의 집필 이전에 수기와 기록단 참여, 낭독회등 ‘작가 행동’을 벌이며 세월호 정국에서 담론 너머의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냈다. 서사 문학인 소설은 이전 사회적 재난에서도 역사적 증언으로서, 불가능한 애도로서, 재현 불가능성을 진술하는 역할을 해왔다. 세월호 정국에서 소설의 형상화 방식은 주디스 허먼이 말하는 사회적 트라우마의 증상 및 치유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첫째,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 형태로서의 문학은 스스로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언의 역할로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역사적 증언으로서 이야기 재구성의 방식을 보이는 작품은 김탁환의 『거짓말이다』가 가장 뚜렷했다. 김탁환은 민간 잠수사가 맹골수도에서 시신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겪는 고립과 고통, 분노와 절망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또 세월호 사건으로 소환된 기억의 공간을 말하는 김연수의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도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이야기 재구성’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트라우마 극복의 새로운 형태로 치유적 글쓰기로서의 문학이 나타났다. 기존 사회적 재난과 달리 ‘담론화’의 작업은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적 트라우마 극복의 차원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정부의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만들며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정국에서 소설은 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한강의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은 희생자와 가해자, 유족과 생존자 등 당사자가 아닌 타자의 윤리를 이야기하며 세월호 사건에서 제3지대란 불가능함을 묘사하고 있다. 윤대녕의 「서울-북미간」은 상실과 아픔을 현실화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비록 온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아픔과 공포가 있겠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 삶 길 위에서 다시

만나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버둥거려야 한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세월호 사건 이후의 한국문학은 세월호 사건을 '4·16'으로 주기적으로 기념하고 추모하며 박제화되는 과정을 거부하고 '기억을 현재화'하여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상 안으로 불러올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 사건 이후로 아직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학작품들은 상실의 공동체를 구축하여 다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한강소설의 주인공 '내가 유령 임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현재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해 나가는 '연결'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은 유가족과 생존자를 대하는 목격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윤리성'이자 소설이 만들어주는 가능성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세월호 사건 이후 문학은 무너진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감의 공동체' 구성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416 세월호참사기록위원회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서울: 창작과비평사, 2015.
- 강유정. “가까스로, 필연적으로 - 2014년 4월 16일 이후 문학과 영화의 자리.” 『릿터』 5(2017), 41-46.
- 고은 외 68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서울: 실천문학사, 2014.
- 김애란, 김연숙, 김연수. 『눈먼 자들의 국가』. 서울: 문학동네, 2014.
- 김연수 외. 『2016 올해의 문제소설』. 서울: 푸른사상, 2016.
- 김영찬. “고통과 문학, 고통의 문학.” 『우리말글』 72(2017), 291-314.
- 김요섭. “다시, 응성거림의 문학.” 『창작과 비평』 173(2016), 366-383.
- 김종건. “세월호 트라우마와 죽은 자와의 연대.” 『진보평론』 61(2014), 70-86.
- 김종엽 외 3인. 『세월호 이 후의 사회과학』. 서울: 그린비, 2015.
- 김탁환. 『거짓말이다』. 서울: 북스피어, 2016.
- 노명우외 3인. 『평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울: 현실문화연구, 2015.
- 노진철.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5.
- 박미애. “위험사회의 성찰적 책임윤리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와 울리히 벡의 성찰적 근대화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96(2005), 265-289.
- 박민규 외 11인. 『눈먼 자들의 국가』. 서울: 문학동네, 2014.
- 소영현. “목격하는 증인, 기록하는 증인 : 이후의 삶 혹은 문학.” 『문예중앙』 149(2017), 23-32.
- 신성환. “한국 소설에 나타난 부재의 기억에 대한 상상력-4·6 세월호 참사를 다룬 네 편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58(2015), 123-158.
- 심상대 외 14인.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 예옥, 2015.
- 양경연.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304낭독회에 대한 기록.” 『릿터』 5(2017), 46-52.
- 윤대녕. 『누가 고양이를 죽였나』.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9.
- \_\_\_\_\_. 『피에로들의 집』.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6.
- 이광호. “남은 자의 침묵 - 세월호 이 후에도 문학은 가능한가.” 『문학과 사회』

108(2017), 318-342.

이태숙 외. 『2016 올해의 문제소설』. 서울: 푸른사상, 2016.

임미원. “백의 위험사회론에 대한 기초적 고찰.” 『법학논총』 31(2014), 197-217.

임정자 외. 『세월호 이야기』. 서울: 별숲, 2014.

한강 외. 『제15회 황순원 문학상 수상 작품집』. 서울: 중앙북스, 2017.

한상진. “위험사회 분석과 비판이론 - 울리히 벡의 서울 강의와 한국사회.” 『사회와 이론』 12(2008), 37-72.

한숙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 예옥, 2015.

Alexander, Jeffrey Charles. *Meanings of social life : a cultural sociology*. 박선웅 역,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Arrivé, Michel. *Linguistique et psychanalyse : Freud, Saussure, Hjelmslev, Lacan et le*. 최용호 역, 『언어학과 정신분석학』, 서울: 인간사랑, 1992.

Beck, Ulrich. *Risikogesellschaft*.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1997.

Beck Ulrich. *Weltrisikogesellschaft : Auf der Suche nach der verlorenen Sicherheit*. 박미애 · 이진우 역. 『글로벌 위험사회』. 서울: 길, 2010.

Giddens, Anthony , Beck Ulrich , Lash Scott. *Reflexive Modernization*. 임현진 · 정일준 역, 『성찰적 근대화』, 서울: 한울, 1998.

Kast, Verena . *Trauern*. 채기화 역, 『애도』, 서울: 궁리, 2007.

Pennebake, James W. *Opening up : the healing power of expressing emotions*. 김중환 · 박광배 역, 『털어놓기와 건강』, 서울: 학지사, 1999.

Herman, Judith.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최현정 역,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서울: 열린 책들, 2012.

Wolynn, Mark. *It Didn't Start with You*. 정지연 역,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서울: 푸른숲, 2016.

‘불평등한 불안과 공포’, 『경향신문』 2015년 8월 17일자, 제5면.

‘세월호 이후 한국은 무간지옥 같았다.’ 『매일경제 MBN』, 2017년 5월 25일자, 제5면.

‘아이들 안고 나온 잠수사들 이야기... 전부 사실입니다 : 김택환 장편 ‘거짓말이다’ 세월호 참사 다뤄’, 『한국일보』, 2016년 7월 28일자, 제7면.

‘소설로 부활한 세월호 잠수사’, 『시사IN』, 2016.8.30.(제467호), 22-25.

254 『기독교사회윤리』 제48집

‘청와대 대변인 “민간 잠수사 시신 1구에 500만원” 발언 논란’, 『국제신문』, 2014년 5월 25일자, 제2면.

‘민간잠수사 수당 지급된 적 없어’, 『아시아경제』, 2014년 5월 8일자, 제3면.

논문투고일: 2020년 1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0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8일

---

 • 국 문 초 록 •
 

---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복잡한 위험들을 안고 사는 위험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서 한국은 이제 성장 위주의 돌진적 모델을 버리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발전 모델로 변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에 대한 내러티브는 아이러니에 대한 내러티브와도 같다」고 말한다. 문학은 내러티브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재생산한다. 그렇게 재생산된 내러티브는 공동체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작가들은 증언으로써의 글쓰기 활동을 하였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상황에서 담론과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한국 문학의 전통이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소설의 형상화 방식은 주디스 허먼이 말하는 사회적 트라우마의 증상 및 치유 과정과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세월호 사건 이후의 한국문학은 세월호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고 추모하는 박제화의 과정을 거부하였다. 한국 문학은 '기억을 현재화'하며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상 안으로 불러올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 사건 이후로 아직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학은 상실의 공동체를 구축하여 다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문학은 위험사회 속에서 무너진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감의 공동체' 구성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세월호, 위험사회, 문학, 치유, 공감

---

